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최 윤 진**
이 용 교
신 선 미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 연구의 내용
- III. 연구의 방법과 절차
- IV. 연구의 결과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가치관, 행동양식, 지식 등을 최초로 익히고 습득하는 곳이 가정임을 상기할 때 가정은 청소년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차적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가정의 기능들이 변질되거나 상실되어가고 있다. 과거 가정이 담당했던 경제적 기능, 교육적 기능, 종교적 기능, 오락적 기능 등은 각각 직장, 학교, 교회, 매체등에 빼앗기고 붕괴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가정의 위기는 청소년의 탈선이나 가출

을 조장하고 밝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의 기능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의 핵심적 기능임을 상기해 볼때, 가정의 정상화와 가정교육 기능의 회복 및 강화가 청소년 육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선적 과제로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 지식이나 기능습득 중심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자녀의 인격, 정서, 사회성의 형성과 함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도래할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가정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교육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학교교육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3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최윤진(연구위원), 이용교(선임연구원), 신선미(연구원)임.

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정교육의 일차적인 담당자가 부모들임을 상기해 볼 때 자녀지도에 대한 부모의 자세와 역량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가변적이고 과도기적인 시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모와의 갈등이 찾아지고 그들의 지도과정에 있어서도 곤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자녀지도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이 각별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교육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컸었던 반면에 가정교육이나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모교육과 청소년기 자녀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이 미흡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몇몇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발간된 자녀교육 자료들도 외국에서 많이 적용되는 부모역할 훈련이나 의사소통 훈련 등 제한된 영역에 치우쳐 왔고 관련 책자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개괄적 방향이나 바람직한 부모자세에 대한 막연한 논의에 그치는 등 현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지도 과정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기 자녀지도를 위해 부모들이 절실히 알고 싶어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자료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부모들에게 청소년기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2년의 가정지도편람(Ⅰ)의 개발에 이어 1993년에 그 후속 자료로서 가정지도편람(Ⅱ)을 개발하게 되었다. 가정지도편람(Ⅰ)이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관한 주요정보

와 지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가정지도편람(Ⅱ)에서는 청소년기 자녀교육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기쉽게 부모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본 연구는 부모대상 교육자료인 가정지도편람(Ⅱ)의 개발에 앞서서, 청소년기 자녀지도와 관련해 중요하게 제기되는 내용 및 주제와 지도요점들을 찾고 선별하기 위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기초조사의 성격으로 수행되었다.

과연 현대 가정에서는 청소년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청소년기 자녀지도의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문제와 딜레마는 무엇이며, 그들은 자녀지도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가?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지도 과정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와 의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어떤 대답을 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어떻게 제시해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분석과 함께 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의 결과들은 부모교육자료인 가정지도편람(Ⅱ)의 집필지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넓게는 현재의 청소년 가정지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지도방안의 수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현대가 요구하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실된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의 분석과 청소년과 부모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가정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을 크게 ① 인간관계지도, ② 생활습관지도, ③ 성교육, ④ 문제행동지도, ⑤ 진로지도, ⑥ 도덕성 및 가치관 지도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로 지도상의 관심과 논쟁을 제기하기 쉬운 주제들을 선별해서 그 실태와 지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정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도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이 실시된 부모와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에서 다른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1) 인간관계지도 : 부와 모의 역할분담 실태와 청소년의 기대/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의견 반영 정도/형제간의 다툼에 대한 태도/친구의 영향(긍정적 및 부정적)에 대한 평가/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 2) 생활습관지도 : 용돈지급방식/물품구매방식/여가시간의 개념과 하고 싶은 일/가사활동 참여정도/시간관리의 실태
- 3) 성교육 :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여부/알고 싶은 성교육항목/성에 대한 태도/기대하는 성교육담당자(기관)
*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부모의 성지식 정도/성에 대한 태도/항목별 성교육시기/자녀에게 질문받은 적이 있는 성교육 내용
- 4) 문제행동지도 : 문제행동의 경험/문제행동

에 대한 심각성 인지정도/문제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대처 방식/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느낌(1)/체벌에 대한 태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가정환경에 대한 의견

*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1) 대신에 ‘자녀의 문제행동 중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이 포함되었다.

- 5) 진로지도 : 진로지도 시기에 관한 의견/직업선택에 있어서 적성 고려정도/직업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진학과 취업의 갈등상황 하에서의 태도/직업결정에 있어서의 제한요인에 대한 태도/직업과 성역할
- 6)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 : 평소에 부모님의 충고내용과 기대하는 충고내용/은연중에 용인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2)/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의 태도

*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2)의 내용은 제외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용〉과 〈학부모용〉의 설문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각각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내용이 첨가되었다.

2. 면접조사의 주요내용

- 1) 인간관계지도
 - 현대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부와 모의 역할분담 형태 및 내용
 - 현대 가정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의 의견 반영 정도와 참여해야 할 의사결정의 내용
 - 자녀들이 다툼 때 부모가 취해야 할 입장과 중재방법

- 자녀의 올바른 친구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와 지도방법
 - 이성교제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와 지도방법
- 2) 생활습관지도
- 용돈의 적절한 지급방식과 액수 및 지출 관리 지도방법
 - 자녀의 적절한 소비습관 형성 및 계획적 구매를 위한 지도방법
 - 여가시간의 개념과 여가활동 지도방법
 -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를 통한 역할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방법
 - 자녀의 시간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지도방법
- 3) 성교육
- 성교육의 의미와 부모들이 지향해야 할 성역할
 - 자녀의 부정적인 성태도 개선을 위한 지도방법
 - 국민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과 방법
 -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과 방법
 -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과 방법
 - 여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 4) 문제행동지도
- 문제행동의 개념과 심각성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인식차이의 극복방법과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의 문제행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방법
 - 자녀의 범죄화 되는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 자녀에게 미치는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방법
 - 사례별 문제행동의 지도방법
(국교생 자녀의 도박, 국교생 자녀의 전

자오락 몰입, 국교생 자녀의 도박성 놀이 탐닉, 중학생 자녀의 음란물 탐독, 중학생 자녀의 상습적 본드흡입, 고교생 자녀의 유흥업소 출입과 가출, 고교생 자녀의 상습적 폭력)

- 자녀의 비행 예방을 위해 평소 가정과 부모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

5) 진로지도

- 자녀 진로지도의 시기와 단계별 진로지도의 내용
- 자녀의 흥미, 적성발견 및 함양 방법과 적성을 고려한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
- 직업세계의 탐색방법 및 직업정보의 획득 방법
- 진학과 취업의 갈등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및 부모의 자세
- 진로에 대한 이상과 현실적 여건 사이의 괴리에서 고민하는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
- 딸에 대한 진로지도 방법

6) 도덕적 및 가치관 지도

-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평소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
- 도덕성 행동이 현실적 이익과 상충하는 상황에서의 자녀 지도방법
- 이기적인 자녀의 지도방법
- “도덕적 불감증”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폐해와 이의 개선을 위한 지도방법
- 자녀의 편법주의적 행동에 대한 지도방법
- 부모-자녀 세대간 갈등에 따른 충돌에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와 지도방법

III.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관련문헌 분석, 설문조사, 면접조사

의 세 가지 조사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첫째로,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 가정지도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특성별로 영역화하고 각 영역별 지도에 있어서 논의대상이 되어지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내용과 항목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로,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부모와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알아 보았다.

셋째로, 문헌분석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각 이슈별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도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의 방법과 절차

조사대상은 대도시의 중고등학생과 그 부모로 제한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고등학생에 한정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조사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춘천, 광주 등의 5개 대도시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 경과를 개관하면, 1993년 8월 설문문항의 구성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고 방학동과 쌍문동의 「지역사회협의회」 학부모들과의 워크샷을 통하여 설문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 워크샷에서는 연구진이 설정한 연구문제의 적합성 및 추가되어야 할 연구문제가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학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렵고 궁금한 사항은

〈표 1〉 각 지역의 설문배포 및 설문회수율

	배 포		회 수		전 체	지역별 회수율
	중학교 (남/여)	고등학교 (남/여)	학 생	학부모		
서울	150명 (100/50)	150명 (100/50)	292명 (97.3%)	259명 (86.3%)	551명	91.8%
부산	150명 (50/100)	150명 (50/100)	298명 (99.3%)	294명 (98.0%)	592명	98.7%
춘천	150명 (100/50)	150명 (50/100)	299명 (99.7%)	283명 (94.3%)	582명	97.0%
대전	150명 (50/100)	150명 (50/100)	300명 (100%)	296명 (98.7%)	596명	99.4%
광주	150명 (50/100)	150명 (100/50)	282명 (94.0%)	286명 (95.3%)	578명	94.7%
총 계	학부모·학생 각 750명	학부모·학생 각 750명	1,471명 (98.1%)	1,418명 (94.5%)	2,889명	96.3%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될 표본의 크기를 학부모, 청소년 각각 1,000명 정도로 설정하고 일선 학교에 예상회수율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회수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60%) 회수율을 감안하여 학부모, 청소년 각각 1,500명을 조사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표본의 크기를 5개 대도시에 각각 학년별(중학생/고등학생), 성별로 할당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배포, 회수하였다. 회수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각 지역 학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6.3%의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였는데, 각 지역의 설문배포 및 회수상황은 위의 표와 같다.

청소년용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를 한 쌍으로 묶어 코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청소년용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가 모두 있을 때 완

전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

그러나 회수과정에서 학부모용 혹은 청소년용의 설문지 중 하나만 회수된 경우가 있고 데이터 크리닝 결과 청소년용과 학부모용이 부모-자녀 쌍을 이루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분석의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청소년의 설문지가 쌍으로 분석되어야 할 경우에는 짝이 맞는 사례만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사례는 청소년 1,474명, 학부모 1,394명이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남/여 및 중/고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이 3:7 정도인데 40대 학부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50% 가량이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표 2>, <표 3> 참조).

수집된 자료는 코딩작업을 거쳐 SPSS-PC⁺ (4.0V)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에는 빈도 분석 *frequency*, 교차분석 *crosstabs Tables*, 비서열적 변수의, 상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표 2>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성 별	구 분	명 수	%
성 별	남	720명	49.2
	여	737명	50.3
	미 상	7명	0.5
학년별	중	739명	50.5
	고	722명	49.4
	미 상	3명	0.2
총계		1,464명	

<표 3>

학부모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성 별	구 분	명 수	%
성 별	남(부)	468명	33.6
	여(모)	910명	65.3
	미 상	16명	1.2
학력별	중졸 이하	327명	23.5
	고졸	720명	51.6
	대졸 이상	319명	22.9
	미 상	28명	2.0
연령별	30대 이하	229명	16.4
	40대	984명	70.8
	50대 이상	143명	10.1
	미 상	38명	2.7
총 계		1,394명	

2. 면접조사의 방법과 절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면접조사지의 내용은 각 영역별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궁금하게 여기거나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행연구 분석과 학부모 자문회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진이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청소년교육과 관계된 상담실, 중등학교, 대학, 연구소,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진 면접조사지를 먼저 보내고 1,2주 후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면접 조사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입한 경우에는 그 조사지를 회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¹⁾.

IV. 연구의 결과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1절) 이에 따라 나타나는 청소년

1) 각 영역별 면접조사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인 간 관 계 지 도 : 김여옥(쌍문중학교 교장), 김혜숙(청소년대화의 광장), 방기연(목동청소년회관)
- 2) 생 활 습 관 지 도 : 김옥순(청소년문화연구소), 김원중(서울대 강사), 김혜숙(청소년대화의 광장), 오진환(오산고)
- 3) 성 교 육 : 김남선(참교육상담소), 이명용(청소년상담연구소), 이명화(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임영희(서울여학생교육원)
- 4) 문 제 행 동 지 도 : 고형원(연성원), 김형태(한남대), 김희태(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이규미(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한명섭(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 5) 진 로 지 도 :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이미정(현대고), 이옥(덕성여대), 이재창(홍익대)
- 6) 도덕성 및 가치관지도 : 김중호(영락교회 청소년상담실), 김혜래(현대고), 손봉호(서울대), 조난심(한국교육개발원)

년 가정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며(2절), 끝으로 오늘날 청소년기 자녀들을 지도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변화와 적응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본 연구가 시사해 주는 바를 밝혀보고자 한다(3절).

1) 인간관계지도

1.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

각 영역별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 태	지 도 방 안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청소년 가정지도는 현재 대부분 부모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또 부모가 공동으로 담당하기를 청소년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는 부모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일, 가정질서를 유지시키는 일, 자녀의 사회, 직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일 등을, 어머니는 살림을 꾸리고 자녀의 학습과 생활습관지도와 일상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일 등을 각각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가계 책임이나 가정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청소년들에게 독립심, 책임감을 보여주교키워줄 수 있는 역할, 어머니는 가정생활을 꾸미고 가족내 유대와 협동을 이끌어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정서와 협동심을 배우게하는 역할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대적 상황과 개별적인 가정적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겠으나 둘 중의 한 사람은 강하게 다룬 한 사람은 부드럽게 처신함으로써 인간관계에 있어서 강온의 조화와 자립심과 협동심의 조화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가정내 의사결정에 자녀의 의견반영 정도 가정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6가지 사항(TV채널선택, 식단결정, 종교생활, 이사계획, 휴가계획, 가구배치)에 걸쳐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청소년의 의견 반영정도를 물어본 결과, 집의 이사문제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50% 이상의 응답자가 청소년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하거나 다소 반영하는 등,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와 청소년 두 집단의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6가지 전 영역에 걸쳐 청소년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가족내의 소속감과 가정문제에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자녀 본인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는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녀가 성숙할수록 더욱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 태	지 도 방 안
들은 부모들에 비해 자신의 의사가 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자녀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이 나타난다. ○ 형제간 다툼에서의 부모의 입장 요즈음 부모들은 싸워도 간섭하지 않는 경우(1.3%)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형이나 아우 가릴 것 없이 똑같이 꾸짖거나(51.2%), 잘못된 사람을 꾸짖음으로써(27.1%) 어떤 형태로든 중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형이 양보하거나 동생이 양보(6.5%)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보다 잘못된 사람이 양보(82.3%)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다툼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기준으로 형제간의 서열보다는 행위의 잘잘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기에 친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부모들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공부에 방해, 나쁜 행동 습득 등)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함께 놀이함으로써 즐거움 부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에 대해 높이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학부모집단 보다 청소년집단이 더 많이 수긍하고 있고 반대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청소년집단 보다 부모집단이 더 많이 수긍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부모들이 청소년보다 친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일단 그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게 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고 그 후에는 부모가 공평한 자세로 쌍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공평한 자세란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모들이 인식하며 지도해야 할 것이며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보다 우수하고 잘난 친구뿐만 아니라 자녀보다 부족하고 못난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서 행동하고 베풀며 사는 법도 친구관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2) 생활습관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용돈 지급방식 청소년들은 한 달이나 한 주에 한 번씩 정해진 액수를 받는 청소년(38.7%)보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받아쓰는 청소년(47.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하는 용돈 지급방식으로는 ①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액수를 받기를 원하는 청소년(40.4%)이, ②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받거나 (30.3%), ③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액수를 받기를 원하는(27.1%) 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용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 래야 예산작성, 합리적인 소비 등에 기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은 자녀의 관리능력에 따라 일주일, 2주, 1달 등으로 하되 학년이 올라가고 경험이 축적되면 기간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한다. 용돈의 액수는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함께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때 같은 또래 아이들의 대체적인 용돈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물품 구매방식 대부분의 품목(학용품, 소설·잡지, 참고서 등)에 걸쳐서 부모가 직접 사다주는 경우보다 알아서 사도록 하거나 함께 가서 사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서 부모가 직접 사다주는 비율이 높은 품목은 음식(간식류 35.5%)과 의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식(간식류)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걸쳐서 70%이상의 청소년들이 '미리 생각했다가 산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충동구매의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충동구매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음식·소설·의류 및 신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물품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부모가 물품을 구입해주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충동적으로 혹은 아이가 원할 때마다 보다는 자녀와 함께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 자녀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줄 필요가 있다. 돈의 귀중함과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 선택의 의미, 디자인, 유행, 싸게 구매하는 방법 등도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 가사활동에의 참여정도 '어머니 안 계실 때 스스로 식사하기'는 항상 하는 청소년의 비율(59.4%)이 높았고, '나의 방 청소 및 정리'(65%)나 '쓰레기 버리기'(54.7%) 등은 가끔 한다는 청소년이 많았으며 '간단한 수선(단추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은 거의 안하는 청소년의 비율(45.7%)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불개기'나 '쓰레기 버리기'를 거의 안하는 청소년도 각각 23.7%, 23.6%나 되었으며 '자신의 방 청소 및 정리'도 12.8%나 되는 청소년들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생활 경험들이 교육적이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간단한 자기방 정리 및 청소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하게 하고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해 주었으면 하는 역할들을 제시하고 자녀 각각이 맡을 수 있는 역할, 맡고 싶은 역할 등을 제시하여 같이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가정일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라

실 태	지 도 방 안
거의 안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의 방 청소 및 정리’(97.8%)나 ‘이불개기’(93.3 %), ‘쓰레기 버리기’(84.9%) 등은 평소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향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고, 거의 안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시간활용 방식 시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 계획에 맞추어 보내는 청소년(3.6%)은 매우 적었고 특별한 계획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보내거나(45.6%)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청소년(49.4%)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이상의 부모들이 자녀의 시간 계획과 활용에 대해 충고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나머지 30%-40% 부모들은 자녀의 시간관리나 활용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인식을 심어주어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 사용지도는 자신의 생활을 시간별로 잘 기록하여 분석함으로써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무엇인가 의미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부터 일찍 기상하며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다.

3) 성교육

실 태	지 도 방 안
○ 성교육 경험정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49.1%)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8개 항목별 성교육 경험유무를 물어본 결과에 있어서도 ‘생식기 구조’, ‘임신과 출산’, ‘성병’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청소년이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성교육 항목을 물어본 결과 ‘이성교제’, ‘결혼’, ‘성 행위’, ‘성 피해 방지’, ‘성병’의 순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성의 노예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녀의 성충동 자체를 무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의 습관을 키워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녀의 수준에 따라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객관적 사실들을 알려주고 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실 태	지 도 방 안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성행위’나 ‘성병’에 관해 전혀 교육받아 보지 못한 청소년이 각각 90.2%,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피해 방지’에 관해서도 62.7%나 되는 청소년이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성교육 담당자 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 모두 청소년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을(부모집단 61.3%, 청소년집단 40.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부모들보다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서나 친구들로부터 성지식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태도 응답자중 82%의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 질문하기를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67%가 월경이나 동정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있으며 60%의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으로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을 비교해 볼 때 부모가 성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성에 대한 생각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 요구되는 성교육 내용 18가지 항목의 성교육의 내용을 어느 시기에 가르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부모들에게 물어본 결과 중학교 때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율이 높은 항목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을 돌고 있었다. ‘월경’이나 ‘생식기 구조’ 등	성교육이란 성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태도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올바른 성적 정체감을 길러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아이들의 성교육의 주체는 가정에서의 부모이다. 자녀의 성장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개별지도가 쉽기 때문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통해 아이들 각자가 성역할을 배우기 때문이다. 자녀의 부정적인 성태도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부터 성에 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알려주어야 할 것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고치고 보다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태도로 자녀의 성 교육에 임해야 한다. ○ 국민학생의 성교육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알려주되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 중학생의 성교육 자녀의 성적호기심이 음란비디오와 서적

실 태	지 도 방 안
의 내용은 국민학교때 가르쳐 주는데 좋겠다는 의견이 각각 55.3%, 38.9%로 높았고 ‘신체변화’(52.2%), ‘사춘기 정서변화’(68.5%), ‘성충동’(50.1%) 등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중학교 때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결혼’(50.4%)이나 ‘가족계획’(49.0%) 등은 고교졸업 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자위행위’, ‘성행위’, ‘인공 임신중절’ 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20% 가까이 되는 부모들이 아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위의 사항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등 왜곡된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도록 항상 자녀의 상황변화와 생활변화에 관심을 두고 자주 이해심을 갖고 자녀와 대화를 하도록 한다. 성인용 비디오들의 관리에 유의하고 평소 건전한 운동과 취미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 고등학생의 성교육 분출하는 성적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며 한편으로는 인내,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자위행위, 성병, 임신 등에 관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성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시키며 성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이성관,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다양한 정신활동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힘쓴다.

4) 문제행동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청소년이 부모님 몰래하는 행동유형과 부모가 가장 염려하는 자녀의 문제행동 16가지 유형의 행동들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부모님 몰래 한 적이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모님께 거짓말 하기, 전자오락실 출입, 음란물보기, 이성교제의 순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많았으며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일으키는 문제행동들 중 가장 염려스러운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모님께 거짓말 하기, 전자오락실 출입, 흡연, 이성교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 문제행동의 심각성 인지정도와 경험빈도의 관계	문제행동 징후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자녀의 다음과 같은 행동변화에 주목한다. - 전화통화가 잦아진다. - 하교시간이 늦어진다. - 외박이 잦아진다. -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쓴다. - 부모에 대해 태도가 불손해 진다 등 초기 문제행동의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친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 - 지나친 간섭, 의심, 비난을 피하고 관점의 차이를 조정한다.

실 태	지 도 방 안
또한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와 행동경험 빈도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행동을 심각하게 느낄수록 경험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대처방안과 이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벌이나 매를 통해 가르치거나(10.4%), 참고 지켜보기(12.9%) 보다는 대화를 통해 지도(73.1%)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이 무조건 혼을 내며 야단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7%나 되었다. 각각의 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더니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61.9%) ‘대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부모님께서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도 29.6%나 되었다. ○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견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기 쉬운 가정적 상황으로서 부모집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부모 51.7%, 청소년 47.9%)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등을 들었다.	- 자녀에게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관된 규칙을 제공하도록 한다. - 흡연이나 음주 등은 그 해독을 설명하고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며 문제행동의 결과는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자녀에게 인식시킨다. 자녀의 문제행동이 범죄적 양상을 보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잘못에 대한 용서를 너무 빨리 하거나 자녀가 저지른 행동을 무마하고자 불끄러 다니는 태도 등은 사회적·법적 제재의 효력과 자녀의 정의에 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 피해자에게 부모가 사과하는 모습 보임으로써 자녀가 심리적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돌아올 때까지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도벽, 전차오락실출입, 도박, 음란비디오나 서적탐닉, 본드흡입, 유홍업소출입, 폭력 등 유형별 문제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도 방안들은 본 보고서 pp.103~108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 ○ 자녀의 비행 예방하고 탈선을 막기 위해서 평소 부모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자녀로 하여금 가족일체감을 형성하고 부모와 심리적 유대감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이를 기초로 행동에 대한 허용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일관된 태도로 자녀지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진로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진로지도의 시작시기에 관한 견해 청소년집단과 학부모집단 모두 중학교 부터 시작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율(청소년 56.5%, 학부모 45.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국민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집단의 경우, 부모집단 보다 중학교부터 해야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들은 청소년에 비해서 고등학교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진로지도시기가 빨라야 한다고 생각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들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는 자녀가 일의 세계 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장래취업과 관 련한 보다 구체적인 진로지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제 도 여건상 중학교 때부터 가능하다.
○ 진로지도에 있어서 자녀 적성의 고려 정도 와 적성파악방법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직업을 권할 때 그들 의 적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어느 정도 고려하여 권유’한다고 응답한 청소년(46.2%)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여 권유’한다고 응답한 청소년(33.8%)이 대부분 을 차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적성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에게 진로지도를 위 해 자녀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물어본 결 과 ‘자녀와 대화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57.6%)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 이나 취미를 통해서 파악’하는 비율(34.1%)이 높 았으며 IQ검사나 적성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통해 파악(7.2%)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자녀의 적성과 자녀 의 특성은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자녀의 놀이 태도, 습관, 과목 선호도와 성 취도, 지속적으로 집중력이 높게 나타나는 과제 등 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기 자녀의 흥미와 적성은 자녀 자신의 탐색이나 심 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녀와의 대화, 객관적인 검사자료, 담임선생님과 의 대화 등도 자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직종에 대한 인지정도와 직업정보 획득 방법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응답자의 78.3%의 부모들	직업세계를 탐색할 때 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보아

실 태	지 도 방 안
과 55.2% 청소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고 청소년 중 39.8%나 되는 응답자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직업관련 지식이나 정보습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직업정보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얻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청소년들은 가정(22.2%), 학교(24.9%), 친구나 선배(24.0%), 서적(25.3%)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부모는 ‘TV나 라디오등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62.0%)이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모들이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진학과 취업’사이, ‘이상과 현실적 여건의 괴리’ 사이에서 갈등할 때의 대처방식 청소년이 ‘실력이 부족하여 대학진학이 어려울 경우’ 부모와 청소년집단 모두 ①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취업, 취업준비등)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부모 66.7%, 청소년 45.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② ‘재수해서라도 대학진학을 하겠다’는 응답자(부모 20.3%, 청소년 32.7%)가 많았다. ③ ‘일단 취업하고 대학진학을 모색하겠다’는 절충적 입장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①의 응답율은 부모집단이 청소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난 데 비해 ②의 응답율은 청소년집단이 부모집단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진학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는 청소년에 비해 현실적응을 고려한 수정의 여지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야 할 내용은 그 직업이 주는 개인적·사회적 의미, 해당 직업에 필요한 적성, 취업준비과정(교육수준, 훈련과정, 자격요건 등), 경제적 보상수준, 작업환경, 미래전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들이다. 우선 청소년기에는 개별직업 아니면 직업군의 수준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진학이나 취업이나를 결정할 때에는 우선 자녀의 인생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학에 진학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취업에 관한 정보들을 기초로 자신의 자아개념, 흥미와 적성, 가치관, 소망하는 생활방식 등과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자녀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현실적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자신의 여건을 인정하고 인생목표를 점검하도록 하며 선망직종 등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개성과 여건에 맞는 직업선택을 장려하도록 한다.

실 태	지 도 방 안
이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력부족 등으로’, 이상적 직업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부모집단과 청소년집단의 반응의 차이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즉, ①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제한을 극복하겠다’(52.5%)고 말한 청소년들이 ②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하게 하겠다.(46.4%)고 말한 청소년들 보다 많은반면 부모들은 ②의 응답자(56.2%)가 ①의 응답자(42.5%)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모들이 보다 현실적응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도덕성과 가치관지도

실 태	지 도 방 안
○ 부모들의 충고내용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가장 자주 하는 충고의 내용으로서 ‘학업 및 성적’ 혹은 ‘생활습관’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가장 적게 하는 충고의 내용은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 ‘인생의 목적, 가치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하여,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에 관하여 충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소에 청소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듣기를 바라는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것이나 ‘인생의 목적, 가치관’에 관한 충고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녀의 도덕성 및 가치관 지도를 위해서 부모들이 평소 유념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꼭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후 부모부터 모범을 보일 것 — 자녀에게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자존심을 일깨워 줄 것 — 원칙과 가치의 위계체계를 제시하여 중요한 원칙과 가치 우선으로 지켜나가도록 할 것 —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원리원칙대로 성실히 수행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말 것 — 부모부터 현실논리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활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 등

실 태	지 도 방 안
○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6가지 비도덕적 상황중에서 ‘문방구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슬쩍 집어 왔다’는 문항에 대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84.3%), 다음으로는 ‘시험을 볼 때 옆자리 학생의 답안을 슬쩍 훑쳐 보았다’(61.4%), ‘친구 혹은 하급생을 때렸다’(60.0%)의 문항에 대하여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시내버스나 전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나갔다’의 문항에 대하여는 각각 59.2%, 58.3%의 학생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넜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적었는데(16.4%), 이 문항에 대하여는 ‘별 느낌없다’는 응답도 25.9%나 되어 학생들이 무단횡단에 대하여는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모-자녀간 의견 대립시 대처방안 ①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일, ②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 ③ 밤의 귀가시간을 결정하는 일, ④ 용돈의 양을 정하는 일, ⑤ 교과의 클럽/씨클활동을 하는 일, ⑥ 장래직업을 선택하는 일 등의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③과 ④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밖의 상황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녀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전 영역에 걸쳐서 학부모 집단과 청	년남을 한다든지, 차가 없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넌다든지, 약속시간에 예사로 늦는다든지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도덕적 불감증’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도덕적 감수성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이것은 성인이, 집에서는 부모가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무디어진 청소년의 감수성이 깨어날 수 있도록 부모 자신부터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타인을 고려할 줄 모르고 친구를 이해한다거나 친구와 협동할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자녀에게는 공동체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개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고양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상이한 신념, 가치기준 등으로 인해 자녀와 충돌하게 될 때 부모가 자녀야 할 태도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고 특별한 가치,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옷을 입는 방식, 머리모양, 음악에 대한 취향 등 각자의 기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들일 경우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실 태	지 도 방 안
소년집단은 각각 자신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 가정지도의 문제점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현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자녀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와 자녀간의 입장과 시각에 있어 불일치와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가정내의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며, 또 의견이 대립될 때도 부모와 청소년들은 각각 자신들의 의사가 좀 더 고려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룰 때 다루는 자녀를 모두 꾸짖음으로써 싸움을 증대하는 한편 청소년들은 잘못된 사람을 꾸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친구의 영향에 대하여는 청소년보다 학부모들이 자녀친구들의 부정적 영향에 수긍하는 경향이 높았다. 넷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지적해 주며 대화로 지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무조건 화내며 야단친다고 느끼거나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아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었다. 다섯째,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력의 부족으로 이상적 직업선택이 어려운 경우 부모들은 현실상황을 고려해서 자녀가 진로를 수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현실의 제한을 극복해 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 2) 청소년들이 필요로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교육과 진로지도에 있어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응답자의 절반가량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전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병’이나 ‘성피해방지’, ‘성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볼 때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종과 직업세계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매우 적었고, 응답자의 39.8%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은 평소에 부모로부터 직업관 및 일의 세계에 관한 충고를 듣기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내용의 충고는 학업이나 성적, 생활습관 등의 부문 등에 비하여 부모들이 가장 적게 충고하는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수행해야할 책임이 면제되어 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의 방 청소 및 정리’와 ‘이불개기’, ‘쓰레기 버리기’ 등은 평소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항상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고 또 거의 안하는 청소년들도 각각 전체 응답자의 12.8%, 23.7%, 23.6%나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단추달기, 다림질, 전구달기 등의 간단한 수선은 평소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5.3%나 되었고 실제로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이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획을 세워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부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적응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부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와 적응의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자녀와의 시각차이 극복을 위한 자녀이해의 증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시각의 불일치는 세대차나 서로 살아가는 과정과 상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가 심할수록 쌍방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입장과 관점을 무시한 채 권위만을 주장할 경우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서 소개된 조사결과들이 시사해 주듯이, 청소년은 부모와는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

모들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은연중에 자녀를 어른의 축소물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자녀들도 권리를 추구하고 독자적 삶의 한계를 형성해가는 개별적 인격체라는 사실을 각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 자신의 잣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자신의 틀에 맞추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자녀 지도 능력의 함양

청소년들이 지도 받기를 원하는 성교육이나 진로지도가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사실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교육내용과 발달과업 등에 관한 부모의 관심과 이해의 부족, 필요한 부문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부모의 적절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부모의 능력과 자질의 부족에서 그 주요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교육담당자인 부모들의 역할이 전문적 교육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가정도 무의도적인 비형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못지 않게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수록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교육의 일차적 담당자인 부모의 교육적 능력과 자질도 자녀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장 단계별, 시기별로 자녀의 특성과 요구를 알고 이해하는 일, 또 관련 지식과 지도기법을 습득하는 일 등이 부모들에게 요청되는 능력과 자질의 중요 요소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부모의 위상 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기본적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고 단계별 지도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능숙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자녀지도 만큼은 그 어떤 전문가 못지않게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부모상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성장을 같이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자녀교육관의 확립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정교육을 통해 갖추고 배워야 할 자세와 일들의 많은 부분이 면제되고 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직면해 있는 입시부담과 공부압력 등의 오늘날의 교육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현실을 수용하고 가정에서 자녀가 수행할 역할과 책임을 유예시키고 눈감아 주는 부모들의 태도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부모들의 교육관과 자녀상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 졸업 후에는 출세한 성공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

이 추구하는 자녀상이며 교육의 목표로 자리잡아 왔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창시절을 거처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쏟지 못해 왔었다.

출세지향적 교육관은 경쟁심리와 이기심을 부추기고 삶에 필요한 협동심과 책임의식을 기르는데 소홀히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머리 좋고 공부 잘 하는 지적 수월성만이 교육적 가치로 학교와 가정에서 강조됨으로써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질들이 계발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버리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팽배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제대로 키우질 못해 왔다. 이제 부모들의 자녀상과 교육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획일적 교육관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개성과 자질을 찾아 스스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며,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의식, 협동심의 함양과 함께 현재의 출세지향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녀상과 이에 걸맞는 교육관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공부 때문에 면제되어왔던 자녀의 역할과 책임도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